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3.07.1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한국-EU,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(6.30)

- EU와 한국은 '22년 11월 체결한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첫 장관급 회의 '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'를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함
- 양측은 반도체, 초고성능컴퓨팅(HPC) 및 양자기술, 5G and beyond, 플랫폼 이코노미, 인공지능(AI), 사이버보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

- (반도체) 상호 보완적인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한-EU 반도체 연구자 포럼 설립
- (HPC/양자) ▲극한 기상 현상이나 재료과학과 같은 공동 관심사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개발, ▲HPC 인프라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력, ▲표준 및 연구 작업을 위한 양자 전문가 그룹 설립
- (5G/6G) 5G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6G에 대한 공통 비전 정의
- (AI) ▲AI 협력 강화, ▲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영구적인 대화 구축
- 양측은 또한 정보교류와 산업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'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'의 원칙을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

○ 뉴질랜드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체결(7.9)

- 이번 협정은 유럽 역외 국가가 HE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최초 사례
- ※ 협정에는 EU 연구혁신총국장과 NATO 주재 뉴질랜드 대사인 Carl Reich가 서명하였으며,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도 서명식에 참석함 (같은 기간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(FTA)에 서명하였음)
- 뉴질랜드는 분담금으로 '27년까지 총 1,800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이며, 이는 뉴질랜드 측의 HE 참여에 대한 양국 간의 공동 예측 결과에 따름

○ 집행위, 유럽혁신스코어보드(EIS) 2023 발간(7.6)

- [스코어보드](#)에 따르면 '16년 이후 EU의 혁신 성과는 약 8.5% 향상함
- '22년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, 네덜란드, 벨기에인 것으로 나타남
-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은 EU 평균 대비 126%를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혁신 성과가 가장 좋은 국가이며, 캐나다, 미국, 호주가 그 뒤를 이음

- (기타) ▲몬테네그로-EU, 제2회 호라이즌 유럽 R&I 공동위원회 개최(7.4) ▲유럽의회, 반도체법 승인...칩 관련 연구혁신에 33억 유로(7.11) ▲(KBA Europe)EU 집행위, EU 미래 전략 방향 설정한 '미래전략보고서' 발표(7.6) ▲집행위, H2020 목표에 대한 MSCA의 기여도 관련 연구 발표(7.5) ▲유럽의회, 유럽의 디지털 정책 어젠다에 관한 팩트시트 발간(6.30)